길림신문
立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吉林省委朝鮮文机关报
吉林朝鮮文报综合新闻

길림신문

2025 년 3 월
1
토요일
음력 2 월 2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鮮文报 제 6004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연변 , 따뜻한 민생실사로 정감있는 민생 프로젝트 건설

연변주에서 민생실사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해나간 이야기

인민의 바람이 바로 정책의 방향이다. 민생 건설은 민심과 이어지며 군중들의 행복한 삶의 '바탕색'이다.

낡은 집에서 새집으로, 단층집에서 아빠트로의 변화는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군중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시켜 군중들의 '밥그릇'을 더욱 안정시켰다. 상감식(嵌入式) 사회구역 자택양로봉사쎈터를 구축해 고령자를 위한 봉사 난제를 해결해주었으며 민생 행복에 부단히 '추가 점수'를 더해주고 있다.

……

2024 년도에 연변주에서는 6 대 민생향상행동을 실시하고 50 개 구체적 임무를 시달하면서 취업, 교육, 의료, 주거 등 민생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생의 난제를 해결하였으며 민생 최저선을 튼튼히 구축하였다.

최근 기자는 연변주 여러 현, 시들을 방문하면서 민생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민생실사들이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시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청소년들의 체질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변주에서는 건강 제일 리념을 견지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활력운동장'으로 가도록 인도, 운동장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사진은 연길시연하소학교 운동장.

/ 김파기자

설 련휴를 앞두고 연길시 진학가두 문화사회구역의 종합 상감식 사회구역 자택양로봉사쎈터를 찾았다. 쎈터의 일군이 현유의 시설과 봉사 리념, 일상 운영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깨끗한 방, 다양한 오락활동시설, 균형 잡힌 영양식단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호평을 받고 있었다.

"쎈터는 지하 1 층과 지상 3 층으로 총 1,758 평방메터이며 8 개 방에 32 개 침대를 비롯해 식당, 활동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구역 로인들이 집앞에서 전문적인 양로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와 단기 입주 봉사를 제공합니다." 연길시 진학가두 사회사무과 과장 왕려연의 소개에 따르면 이 대상은 2023 년 6 월에 착공했는데 총투자가 585 만원에 달한다. 내부에는 거주구역, 민선(民膳)식당, 재활훈련실, 의료보건실 등이 마련되여 로인들의 일상적 돌봄, 전문 간호와 정신적 위안 등 전문적인 양로봉사를 지원한다.

"로후에 부양받을 수 있고 의지할 곳이 있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념원이 이 민생실사에서 현실로 되였다.

교육은 민생의 근본이며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기반이다. 훈춘시제 8 소학교에서 기자는 활력으로 넘치는 운동장을 볼 수 있었다.

"'활력운동장' 도입으로 학교 시설이 뚜렷이 개선되였습니다. 교원과 학생들의 활동 환경이 최적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밝고 아름다운 풍경을 더해주었습니다." 훈춘시교육국 부국장 서대동은 새롭게 단장한 운동장과 시설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대동은 훈춘시에서 35 만원을 투자해 5 개 학교들에 '활력운동장'을 건설하고 체육시설을 마련해주었다고 소개했다. 이 체육시설들은 빙설 특색 프로젝트와 축구, 롱구, 배구 경기 그리고 다채로운 체육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체질 건강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변주에서는 건강 제일 리념을 견지하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운동장으로 가도록 인도했다. 30 개 학교들에 '활력운동장'을 우선 설치한 결과 운동장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년령과 신체 조건에 맞춘 체육활동을 설계해 학생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주고 있었다.

로후주택단지 개조는 주민 생활의 행복과 직결된다. 연변주에서는 로후주택단지 개조를 중요한 민생 프로젝트로 추진해왔다.

돈화시 강혜화원아빠트단지에 들어서면 깨끗한 환경이 눈에 띈다. 지난날의 낡은 건물과 갈라 터진 도로 등 주민들의 고민거리들이 이젠 모두 사라졌다.

2002 년에 건설된 이 단지는 12 개 동에 460 가구가 거주한다. 오래된 상하수도, 난방도관 등 기반시설로 거주안전과 주민들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쳤다.

돈화시부동산관리국 로후주택단지 개조판공실 주임 정금귀의 소개에 따르면 2023 년 시작된 개조 공사에는 비물, 오물, 열공급, 조명, 전기 시설 개선과 도로, 인행도, 록화, 경관소품, 울타리 등 실외 시설 승격 개조, 아빠트 출입문 교체, 복도 도색, 난방도관 보호, 조명 설치 등까지 포함되였다.

핵심적인 작은 일에 신경 써 큰 민생을 이뤄낸 셈이다. 연변주에서는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발전의 결실을 더 많은 군중들과 나누고 있었다. 2024 년도에 전 주적으로 166 만 7,000 평방메터의 로후주택단지 개조가 진행되였다.

사회구조(救助)는 민심과 련결되며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연변주는 방식을 혁신하고 봉사질을 높여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면서 특수군체가 당과 정부의 관심을 체감하도록 노력했다.

"국가 보조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유방암에 걸린 룡정시의 박씨 녀성은 2018 년도에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였다. 박씨 녀성은 정부의 생활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높은 의료비 보상과 큰 병 지원 정책 덕분에 삶의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룡정시민정국 사회구조과 과장 리염려는 "우리는 주요하게 신청을 받거나 주동적으로 찾아내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민정국은 의료보험국과 위생건강부문과 협력해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을 추적 조사하는 것으로 구조사업의 주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룡정시는 저소득층 동태 모니터링과 지속적 구조를 강화하고 자원 통합, 기초생활 보장, 봉사력량 증진에 주력하면서 사회구조가 보다 따뜻하고 보다 보람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걸음 한걸음 차근차근 나가고 한해 또 한해 꾸준히 일해나가고 있다. 연변주에서는 따뜻한 민생실사로 정감적인 민생 프로젝트들을 건설함으로써 더 많은 '민생난제'를 '행복계산서'로 바꾸어 군중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살펴나가고 있다.

/ 길림일보

최근, 장춘시 북경대가 서력사문화거리 부분적 구역 개조가 완성되면서 시험 운영을 시작했는데 '5.1'절전에 전부 개방될 예정이다. 개조후 이 구역은 력사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는 기초에서 예술문화, 상업관광, 생활미학을 일체화한 '도시응접실'과 왕홍출첵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하게 된다.

/ 길림일보

대표위원들의 풍채

리동호위원 : 특색산업의 더욱 좋은 발전 추동해야

황갈색 땅의 푸른 비닐하우스 안에는 인삼묘목이 엄지손가락 높이만큼 자랐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연변대학 리학원 화학학부 교수인 리동호는 옆에 있는 삼농에게 "당신은 인삼 재배 '베테랑'인데 최근 2 년 동안 인삼이 잘 팔립니까? 병충해는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길림성 장백산지역은 중국 인삼의 원산지 및 핵심생산지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현지 인삼은 한때 '무우가격'에 팔렸다. 연변주에서 나서자란 리동호는 전국정협 위원을 맡은 이후로 줄곧 인삼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가 제출한 인삼 심층가공, 홍삼 건강식품 목록 편입 제안은 모두 관련 부문의 중시를 받았다.

인삼재배농촌, 인삼가공기업, 인삼거래시장, 대학교… 작년에 리동호는 인삼산업 발전의 관련 단계를 중심으로 많은 조사연구를 진행했는데 노트에는 조사후 얻은 정보와 그의 생각들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조사연구를 통해 그는 인삼산업이 규모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좋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방면의 합력으로 심층가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올해 전국 량회에서 리동호는 인삼산업 종사자들의 공동한 수요를 정리하고 정부부문 일군과 전문가, 학자들의 분석 및 교류를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의 협력 촉진, 대학교 인삼 효능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격려를 둘러싸고 건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삼묘목이 마을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황금인형'이 되길 바란다." 날이 어두워지자 삼지에서 나온 리동호는 올해 자신은 백산, 통화 등 인삼생산지로 가서 계속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전국정협 위원으로서 일선에 깊이 들어가 착실하게 지역 특색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진흥과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인민일보

로후 농기계 폐기 보조금 인상, 범위 확대

2 월 25 일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올해 로후 농기계 보조금이 가일층 확대되고 보조 표준도 뚜렷이 인상된다.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량식물자비축국이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2025 년 농업기계 폐기경신 보조정책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는 로후 농기계 폐기 보조 범위를 가일층 확대하여 기존의 8 가지 농기계 종류의 기초에서 벼이앙기(水稻抛秧机), 전간작업모니터링단말기(田间作业监测终端), 식물보호무인기(植保无人机), 곡물건조기(粮食干燥机), 색상분류기(色选机), 제분기(磨粉机)를 새롭게 폐기경신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또 2024 년 표준 향상 관련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일부 중점 기계도구에 대한 보조 표준을 재차 인상하며 벼모내기기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동일한 종류의 기계를 새로 구입할 경우 보조 표준을 최대 50% 까지 인상한다고 제기했다. 폐기 및 갱신된 목화수확기의 경우 단일 폐기 보조금이 최대 6 만원에서 8 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용 북두보조운전시스템(农用北斗辅助驾驶系统), 전간작업모니터링단말기, 식물보호무인기를 폐기하고 경신할 경우 폐기 보조 표준이 50% 인상된다.

/ 신화사

3 월 1 일부터 연변주 주택공적금 정책 대폭 조정

주택공적금의 주택 소비 지원, 민생복지 보장 중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추며 시장 활기를 자극하고 부동산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3 월 1 일부터 연변주 주택공적금 사용 정책이 대폭 최적화되고 조정된다.

대출 면에는 대출 회수 제한 취소, 선불금 비률 인하, 최고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대출 상환 수입 비률 상향 조정, 납부 잔액 배수 제한 취소, 대출 기한 연장, 상업대출 공적금 전환 업무 범위 확대 등 7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대출 한도에서 이전에는 일방 정상 납부 시 최고 6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7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쌍방 정상 납부 시 기존의 80 만원에서 9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 가정 대출인데 기존에는 최고 대출 한도 토대에서 10 만원을 증가했지만 현재는 20% 상향 조정되였다. 즉 현재 다자녀 가정의 일방 최고 대출 한도는 84 만원, 쌍방 납부 시 최고 108 만원이다.

대출 사용에서 차용인이 대출을 이미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적금 대출 회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납부인이 6 개월 및 그 이상 련속 전액 납부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잔액 배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미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다시 대출을 신청할 때 6 개월 이상의 납부액만 남겨두면 된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우선 연변주외 주택 구매 및 주외 주택 대출 상환 시 주택 구매자의 호적 또는 근무지가 주택 구매지와 일치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다. 2025 년 3 월 1 일 이후 주외 주택 구매 및 주외 주택 대출 상환 시 호적 및 근무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 구매 시 공적금 인출 시간제한 3 년을 취소했고 상업은행 대출 조기 상환 시 공적금 인출 시간제한 1 년을 취소했다. 2025 년 3 월 1 일 이후 자가 주택 구매 및 상업은행 주택 대출 조기 상환 시 납부인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공적금 인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부 면에서는 3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연변주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 납부 사용 관리방법〉을 시행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문제 해결과 가정 주거조건 개선, 제도적 보장 수준 제고를 지원한다.

/ 연변라지오 TV 넷